



환경보전과 폐기물 재활용



조익창 / 한국자원재생공사 총무과장

인류에게 있어 환경오염의 문제는 얼마전까지만해도 크게 절박한 테마는 아니었다고 본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최대 이슈의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인류 복지를 위한 시각에서볼때 당연한 귀결임을 우리는 알 수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자연은 이용개발의 큰 소재였으며 인류는 그 소재를 대상으로하여 문명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해온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문명은 결국 상대적으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한 부국으로 성장 하였으며 이는 그들 국가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결국 환경보전에 관한 선두주자의 역할도 역시 그들의 몫이었으며 그들의 환경보전 실천행위는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준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경제빈국을 벗어나기위한 끊임없는노력의 과정은 사실 뒤를 돌아볼만큼 충분하지도 않았으며 사실 성장 일변도의 큰 기세를 올려왔고 또 그만큼의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그러한 빠른 속도의 걸음은

이제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견지않으면 안되는 사회 분위기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그중 환경문제가 커다란 해결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사실 삶의 질적기준에서 볼때 환경에의 관심은 당연한 귀결이며 문제는 산업화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가 심각이상의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에게 있어 결국 삶의 의미는 행복에 있는 것이라할 수 있겠다. 그러나 행복된 삶의 조건중의 하나가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것이다. 자연환경보전과 폐기물 재활용에 기여함의 취지로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현재 농촌의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처리 업무와함께 동양에서는 최초로 준공된 청주재생공장에서 하이덴 폐비닐(주로 멀칭용으로 쓰인 비닐)을 처리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폐유, 폐타이어 등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함께 추진하고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빈병의 수거는 폐비닐 농약빈병을 방치함으로써 야기되는 위해성 해결을 위한 환경보전측면과 수거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폐기물의 재활용 분야에 있어 외국의 경우는 본받을 만하다. 특히 프랑스등 유럽국의 경우는 생산에서부터 폐기물자원의 처리에까지 완전한 하나의 리사이클링 형태로 짜여져 있으며 결국 자원의 순환이 적절히 이루어짐을 보게된다. 그리고 이의 근본적인 출발은 사실분리수거에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그들국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아 이미 정착화되어 있으며 그러한 예를 몇가지 들어본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워싱턴, 오리건펜실바니아주 등 10개주는 쓰레기 재활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30개주는 분리수거를 의무화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한다. 뉴저지주, 우즈베리시는 신문 잡지, 깡통, 병 등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내놓아야 하며 색깔있는 유리는 투명유리와, 깨끗한 종이는 젖은 종이와, 알미늄 깡통은 주석이나 철등 기타 금속과 구분해야 수거가 가능하다. 분리 의무를 위반하면 5백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된다. 쓰레기를 분리해놓지 않으면 아예실어가 지 않는곳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동경등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오래전부터 정착 되어있다. 붙에타는 것은 누런 봉투에, 안타는것은 하늘색 비닐주머니에 담

아 지정된 하치장에 내놓으면 지정된 날짜, 지정된 시간에 맞춰 압축쓰레기 청소차가 치워간다. 1일1만5천여톤의 쓰레기중 50.7%는 쓰레기처리공장에서 태우고 48.6%는 매립하며 철 0.7%는 자원으로 회수한다. 분별쓰레기 처리공장에서는 태울것은 태우고 플라스틱, 고무, 가죽 등은 분쇄기를 거쳐 1/3정도로 부피를 줄여 매립하고 철, 유리등은 재생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는는 쓰레기 수거운반이 기계화되어 있다. 길가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가 든 비닐주머니를 내놓으면 기계식 청소차가 자동으로 끌어올려 압축시킨다. 또 시에서 배부한 바퀴 달린 쓰레기통을 밀고가서 차에붙이면 자동으로 차에 올라간다. 낙엽도 청소원이 한곳에 쓸어모아 놓으면 흡인청소차가 빨아간다. 이러한 몇개국의 예는 우리와 비교해 볼때 우선 장비에서 현대화와 수거운반체계가 제도적으로 잡혀있음을 알수있으며 이에 협조하는 시민의식을 읽을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도와 여건과 주민의 실천자세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함을알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모범을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농촌환경오염원의 하나인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수거하여 재생처리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수거한 폐비닐의 양만해도 27만톤으로 이는 우리나라 밭 경지면적 약 792천정보를 약 2.4배 덮을수 있는 양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것이 수거되지않고 방치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그간 우리공사의 관리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땀흘린 노력을 알수 있을것이다. 또한 농약빈병 수거역시 정부에서 위탁받은 87년부터 지난 3년간 총1억1천여만개를 수집하여 농촌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이제 앞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도시 농촌 전국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고품 폐기물에 대하여 전담 처리할수있게 영역을 확대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있어 외국의 경우처럼 국내 폐기물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 하여야만 할것이며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다.*